



노인복지사업 25년째 이어와...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에 기쁨 느껴”

정인 스님은 25년 전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불우한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지내왔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정인 스님의 따뜻한 마음은 남다르다. 이에 본보는 정인 스님을 찾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노인복지 사업을 통해 봉사활동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일찍 작고하여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살다보니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못다한 ‘효’를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 연배의 나이 드신 분을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파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자비심이 일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부처님의 ‘이타행’이라 생각하고 사람들 현실 세계에서 펼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년동안 소년소녀 가장을 도왔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도우면서 노인복지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노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의 마음이 너무도 시러왔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나요?

전주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장을 맡으면서 가정의 달에는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열어줍니다. 지난 5월에도 전주 르윈호텔 백재홀에서 경로위안 잔치를 했습니다. 아리랑 예술단을 초청해 ‘효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나눔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이어 전주 수 한방병원에서는 건강상담, 기념식, 점심식사 공양도 하고 있습니다. 르윈호텔에서 한 행사에는 가득 매운 어르신들을 위해 다과와 아리랑 예술단의 흥겨운 공연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공연하기 전에는 먼저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로위안잔치에 참석한 독거어르신들에게는 전주노인복지회원들과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 황철예기스님의 건강식품과, 영양제, 생활 필수품, 무릎보호대 등 7,0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1996년에는 효자등에서 의료기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사랑방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암환자 등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2002년부터 아중리에서 연꽃마을 자비원을 열고 노인과 무연고 아동 등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 어버이날 무렵 등 3~4차례에 걸쳐 100명의 불우이웃에 3,000만원에서 6,000 만원 상당의 다기능 제품들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존경했던 분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무소유를 한 평생 실천하신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을 존경합니다.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고향은 전주입니다. 35년 전에 지리산 주지사라는 절로 출가했습니다. 사미계는 도정스님에게 받고, 비구계는 일봉 서경보

“부모님께서 일찍 작고해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살아 부모님 생각하며 ‘효’를 생각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바라보면 제 마음이 너무도 시러와

전주에서 다양한 봉사 전개 지난달에도 경로위안잔치 벌여 수한방병원 등도 봉사에 도움 줘 봉사활동 하는 것이 행복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 할 것



큰스님께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스님생활과 복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을텐데요?

그동안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내 자신의 업보이다 생각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돈이 많아서 이 사업을 시작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월세방을 살고 있지만 이 일이 중생구제라는 것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르윈호텔 이창승 회장을 비롯해 전주수한방병원 임선영 원장님, 법성스님, 김용순 부지회장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창승 회장은 교회 장로이시면서 종교를 초월하여 저의 법인 교문으로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임선영 원장님도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7년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순 부지회장님도 8년째 도움을 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왔다 가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복지사업에 목적을 두고 사활을 건축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사활이 있으면 신도들로 인하여 잠시도 사활을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민근기자

정인 스님이 걸어온 길



남몰래 도우면서 행해온 일 2011년부터 체계적으로 벌여

정인스님은 25년 전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병들고 힘든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지내왔다. 스님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전주 효자등 제일여객 앞에 노인사랑방을 열고 무료로 물리치료 등을 해 주었다. 2002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를 설립하여 암환자 심장병 환자들을 무료로 수술도 시켜 줬다.

스님은 노인분들을 남몰래 도우면서 행하던 복지사업을 2011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했다. 설날, 추석, 어버이날, 등 매년 3회씩 100여명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위문공연과 각종 필수품을 전달도 했다. 2017년 현재 20회째를 마치고 올해 부터는 50명을 더 늘려 150명씩 설날부터 5월 가정의달 등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